

知的所有權紛爭事例

戲曲 La Petite Catherine 事件

—史的材料發掘엔 發見權이 없다—

<1937年 4月 27日, 英國衡平法院 判決>

- 1. 原告 : 드니즈 슈전느外 3人
- 2. 被告 : 런던映畫會社
- 3. 事件概要

2次大戦前 英國에서 있었던 일이다. 1930년에 알프레드 포즈넨스키가 러시아의 에카테리나2世(1729~1799) 즉 캐더린2世(獨逸胎生으로서 在位34年の 長期執權의 女帝)를 素材로 한 戲曲「작은 캐더린(LPC)」을 發表한 바 있다.

이 희곡은 1931년에 英런던의 페닉스劇場에서 上演된 바 있다.

또한 1937년에는 런던映畫會社는 Catherine the Great(캐더린大帝)를 映畫化하여 映畫館에서 開封하였다. 이 영화의 主演은 女優 엘리자베트 벨크나였다.

이 일이 있는 후 佛파리에 居住하는 드니즈 슈잔느夫人과 헨리에터

포즈넨스키(포즈넨스키의 未亡人) 및 英글랜드에서의 戲曲上演權을 갖고있는 런던居住 바넨夫婦가 共同原告가 되어 런던映畫會社를 相對로 提訴하였다.

理由인즉 캐더린大帝라는 영화는 작은 캐더린의 著作權을 侵害하였다는 것이다.

被告인 런던映畫會社는 그의 영화는 原告가 主張하는 희곡과 無關한 다른 史料에서 取材하여 製作하였다고 맞서게 되었다.

4. 判決要旨

管轄法院判事인 쿠르즈먼 衡平法院判事는 이 訟事를 13日間이나 審問後에 원고의 請求를 棄却하고 피고인 映畫會社의 訴訟費用은 그 3分の 2를 원고가 支拂하라고 判決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敗訴한 것인데 그 事件의 參考資料는 다음과 같다.

(Poznanski v. London Film Production Ltd., Mag Gregor v. Powell, Macg Corp, Cas 107, 233, Kinematograph year Book 1938)

5. 解說

이 判例의 例로 보아 歷史的인 材料를 發掘하여 執筆한 者는 그 表現에 對해서는 著作權이 認定되나 발굴에 對해서는 發見權이 없다는 結論이 나온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 只속까지에 없던 史實을 발견하고 이를 執筆하였을 경우에는 저작權의 範圍問題가 되므로 이를 保護할 수 없는 것이 妥當하겠느냐에는 異論이 있다고 말하는 이가 없지 않다.

알 립

平和油脂

서울事務所 世和빌딩移轉

平和油脂工業株式會社(代表: 金乙出)는 서울事務所를 小公洞 112의 世和빌딩 2層으로 移轉했

다. 電話 23-3191~5

漢陽住宅 新築社屋 起工

株式會社 漢陽住宅(代表: 裴鍾烈)은 城東區 紫陽洞의 新築社屋

起工式을 가졌다.

新築社屋은 地下2層, 地上13層에 延面積 16,800m² 規模로 82年 6월에 完工豫定이다.